

Qualtrics 문구들

아주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들이에요.

당신의 전체 실험이 **심리언어학(SPR)·기억·판단·정서조작**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, **표준 연구 설계의 타당성**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

아래는 ① 시간 제한, ② 객관식 유형, ③ 전체 설계 적합성, ④ 온라인 안내문까지 포함한 **최종 검증 패키지**입니다.



1.

배경 지문 읽기 시간 → “제한시간 있는 자유 읽기 (고정)”가 최선

✓ **권장 시간:**

60초~90초

이유

1. 일정 시간 제한이 필요

- 배경 지문은 *모든 실험 문장의 semantic base*이므로
- 참여자 간 배경 지식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→ 동일 시간 부여가 맞음.

1. 너무 길면 피로도 증가 / 너무 짧으면 encoding 불안정

- 6090초는 일반적으로 단락(200350자)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충분
- 심리언어학 실험에서 “pre-exposure paragraph”에 가장 많이 쓰는 시간 범위임.

1. 읽기 완료 버튼 허용 X

- 빠르게 넘기는 전략 방지
- 지문 정독 품질 유지

✓ **결론: 75초 고정**이 가장 무난하고 권장됩니다.

✓ 2. T/F 문제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?

✓ 정답: "T/F만 사용"은

비추

, **multiple-choice(Likert 포함)**가 더 표준적임

심리언어학·기억 실험에서 판단 과제는 보통 다음 두 분야를 섞습니다:

✓ (1)

Factual accuracy → T/F

-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됨
- memory accuracy 측정에 매우 적합

✓ (2)

Plausibility → Likert(1~7) 혹은 4-choice

- plausible 상태는 사실/거짓의 binary가 아님
- Ding et al.(2016)도 continuous plausibility rating을 사용

✓ **찐 언어실험 기준**

- T/F만 쓰면 plausibility effect가 binary noise에 묻힘
- Likert를 쓰면 N400/P600의 graded semantic integration을 반영하기 쉬움
- 특히 "단어·문장 의미성 평가" 실험에서 Likert가 국제 표준

🔍 **결론**

T/F(정답형) + Likert(연속 plausibility형) 혼합 사용이 최적.

이미 설계하신 방식이 바로 이 표준과 일치합니다.

→ 오히려 매우 잘 하신 선택입니다.

✓ 3. 실험 전체 구조가 언어학·심리언어 실험 표준에 맞는가?

결론:

네. 전체 구조는 정통 **psycholinguistics** 실험의 훌륭한 구성입니다.

아래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합니다:

구성 요소	국제 표준	당신 설계
Self-paced Reading	✓	✓
Modifier manipulation	✓ (adjective/phrase)	✓
Semantic plausibility 조작	✓	✓
Balanced 2×2 within design	✓	✓
Latin-square list design	✓	✓
Judgment (T/F + Likert)	✓	✓
Memory / Old-New discrimination	✓	✓
Free writing (open recall)	✓	✓
Filler 문장 섞기	✓	✓
Randomization per participant	✓	✓
Manipulation check	✓	✓
온라인(qualtrics) 구현 가능	✓	✓

✓ 특히 주목할 점:

- **비판적 의미 통합(semantic integration)** 테스트로서 SPR → Judgment → Memory → Free writing의 순서는 매우 정교하며, Ding et al.(2016)의 ERP 실험 구조와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.
- **Emotion manipulation**이 modifier에만 있고 문장 내용은 일정 → confounding 최소화
- **Free-writing**이 encoding bias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→ 매우 강점

✓ 4. 온라인 실험 안내문(한국어) — Qualtrics 용 완성본

아래는 Qualtrics에 그대로 복붙 가능한 **full instruction set**입니다.

당신의 실험 목적(혐오 표현 조작을 숨기고 자연스러운 SPR로 보이게 하는 것)을 반영했습니다.



[실험 시작 전 안내문 — 참여자용]

■ 실험 안내

본 실험은 언어 이해 과정과 기억 형성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전체 실험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.

피험자께서는 일정 길이의 배경 지문을 읽은 후, 특정 부족에 대한 기록 일부를 읽게 됩니다.

문장은 하나씩 제시되며, 스페이스바(또는 다음 버튼)를 눌러 각 문장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각 부분을 평소 읽는 속도로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됩니다.

이후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시면 실험은 종료됩니다.

정확하고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■ 실험 구성

실험은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.

1. 배경 지문 읽기 (약 75초, 자동 종료)

- 탈렌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.

2. 문장 읽기 과제 (Self-paced Reading)

- 문장을 부분적으로 제시하며, 각 부분을 읽고 넘어가는 속도를 측정합니다.

3. 문장 판단 과제

- 일부 문장에 대해 사실 여부(T/F) 또는 그럴듯함 정도(1~7)를 판단합니다.

4. 기억 과제

- 앞에서 읽은 내용이 기억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주어집니다.

5. 자유 서술 과제

- 탈렌족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습니다.

6. 간단한 설문(조작 체크·감정 상태)

- 실험에 사용된 표현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.

전체 실험은 약 20~30분 정도 소요됩니다.

주의 사항

- 뒤로 가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가능한 조용한 환경에서 참여해 주세요.
 -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.
-

실험 시작

아래 버튼을 눌러 실험을 시작하세요.



[배경 지문 화면 안내문]

다음은 1800년대 후반 Talren족을 연구한 인류학자의 기록을 요약한 내용입니다.

지문 전체를 충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
지문을 모두 읽은 후, 제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
(읽기 시간: **75초**)



[SPR 안내문]

이제 Talren족에 대한 인류학자의 기록 일부가 문장 형태로 제시됩니다.

각 문장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,

- *스페이스바(또는 Next 버튼)**를 눌러 다음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가능한 한 **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속도로** 읽어주세요.



[Plausibility Judgment 안내문]

앞에서 읽은 일부 문장에 대해,

사실 여부(T/F) 또는 ****그럴듯함(1~7)****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.

주어진 문장을 보고, 직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.



[Free Writing 안내문]

앞서 읽은 Talren족에 관한 기록을 바탕으로,

기억나는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.

정답은 없으며, 가능한 한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

(시간 제한: 2~3분)



[Manipulation Check 안내문]

마지막으로, 앞 단계에서 사용된 표현이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해

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.

결론

당신의 실험은 **심리언어학/의미통합 연구 표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.**

특히:

- SPR → Judgment → Memory → Free writing의 구조
- Hate manipulation이 modifier에만 국한되는 방식
- Balanced Latin square 리스트
- 필러 포함
- T/F + Likert 혼합
- 고정 배경 지문 시간(75초)

는 매우 잘 설계되었습니다.

다음으로 바로 제작해드릴 수 있는 것

- Qualtrics용 CSV 전체 4리스트 + 코드 + 문장 텍스트 자동 삽입본
- 지역(region) 단위 SPR 분할을 위한 JS 코드
- R 분석 템플릿(lme4/brms)
- Free writing 자동 분석 템플릿(quanteda, LIWC)
- 파일럿 체크리스트

원하시는지요?